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 지속적 필요

수산물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더욱이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음식이 넘쳐나는 요즘 세상에 수산물은 이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자 웰빙 식품으로 그 가치를 더욱 높여 주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지난 8일(수) 낮 12시부터 해양수산부가 주축이 되어 산하단체 및 관련업계가 참가하는 대대적인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이 서울 명동에서 벌어졌다. “수요일엔 수산물을 많이 먹읍시다”라는 구호 아래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캠페인 행사엔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권오을 위원장, 이영호 의원, 수협 관계자, 인기 가수 아유미야, 주부 탤런트 이연경씨, 소비자 등 다수가 참가해 지난해에 이은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행사엔 전어 시식회도 함께 열려 좋은 수산물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판로 확대로 이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하기도 했다.

“수요일엔 수산물을 많이 먹읍시다”라는 캠페인은 수요일의 ‘수’ 자가 수산물을 자연스럽게 연상시킴으로써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일종의 아이디어 이벤트이다.

수산물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과 풍부한 섬유질, 저칼로리 고단백질로 다이어트와 미용 그리고 건강 유지에 최상의 식품으로 검증돼 있다. 요즘 시중에 유행하고 있는 각종 건강 보조식품의 원료가 대부분 수산물이라는 사실은 한번쯤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과잉 생산으로 어업인들에게 시름을 안겨주고 있는 전어만 해도 그렇다.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전어 머리는 깨가 서 말이다’는 속담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볼 때 전어가 맛이 좋으면서도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세계적인 장수 국가 가운데 하나인 일본의 수산물 소비는 우리의 김치나 된장국처럼 식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일상 생활화 돼 있다. 이는 전국민이 수산물이야 말로 건강유지에

꼭 필요한 웰빙식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은 이런 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웰빙식품인 수산물을 보다 저렴하면서도 손쉽게 먹을 수 있으면서 아울러 국민 건강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나아가 이를 생산하는 어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의 배경엔 국민 건강 증진 문제와 수산업의 장래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캠페인은 당연히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며 보다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수산물 조리법, 가공법 연구라든지, 성분 분석을 통한 국민 건강에 실제로 기여하는 부분, 또한 제철 수산물은 어떤 게 있는지 등 소비자들이 미처 모르고 있거나 간과하고 지나간 내용들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연중 홍보할 필요가 있다.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날 개회사에서 “웰빙 먹거리인 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되고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보다 친근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 캠페인을 실시해 전 국민이 수요일엔 수산물을 많이 먹는 날로 인식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소비자와 어업인들에게 하나의 중대한

약속을 한 셈이다.

이번 캠페인 행사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물론 수산 관련 모든 단체와 조직이 한 덩어리가 되어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와 함께 이로 인한 어업인경제의 부활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래서 수요일 뿐만 아니라 연중 우리 식탁에 우리 수산물이 가득 올라 국민들에게는 건강을, 어업인들에게는 소득을 안겨 주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